



스님의 글씨를 모아 전시회를 열었던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삼소회의 멤버인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는 진명 스님의 얼굴은 마치 법정 스님과 말씀을 나누는 양 편안하고 밝아서 보기 좋았다. 법정 스님은 종교 화합을 위해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여성 성직자들이 만든 삼소회의 창립 증명법사 이었다.

곳 웃으면서 “노래는 무슨”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뒷자리에서 시작된 노래. 마이크는 드디어 법정 스님 앞에서 멈췄다. 거절을 못하고 마이크를 잡은 스님은 “흠!흠!” 헛기침을 하곤 “법정 스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별척은 진명 스님 뒤. 우리고전음악을 하겠다면서 그 당시 크게 유행했던 <갈대의 순정> 가사를 바꿔 불렀다. “스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라~평초의 순정~ 스님의 순정~” 그 노래가 나중에 산사 음악회를 수놓은 <평초의 순정>이다. 차 안에서 노래가 마치 끝나기도 전에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로. 앞자리를 치면서 한참 동안 웃음을 그치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때 빠진 배꼽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법정 스님이 강원도 오두막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진명 스님은 드시는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 주발마다 가서 챙겨드렸다. 갈 때마다 스님과 바깥나들이를 했다.

“나들이 길, 절에 들려 한 바퀴 휘 돌아보면 그 도량 살림살이가 보이잖아요. 형편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꼭 불전함에다 인사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스님 모습을 잘 모를 거예요.”

스님들은 모든 절을 내 집으로 여기다보니 형편을 헤아려 보시하는 걸 놓치기 쉬운데 법정 스님은 달랐다. 진명 스님은 지금도 불자들 사찰순례를 할 때 살림이 어려운 절에 들르게 되면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 주머니 다 털고 갑시다. 먼지까지 다 털고 갑시다”한다. “한번은 길을 가는데 봉고차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스님이 그걸 보시고는 ‘제가 고단했나? 왜 저렇게 누워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요. 하하. 그때 마침 뽀얀 하늘에 해가 서산으로 누워있던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해가 유난히 불그스름하니 아름다웠어요. 그 광경을 보시곤 ‘달 같은 해, 해 같은 달.’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글에 쓰셨을 거야 아마.” 사물을 대하는 그윽한 스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다.

원아분신변진찰(願我分身遍塵刹)

“법정 스님이 입을 열어서 종교화합해라. 벽을 허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연스레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서 교감을 나누셨던 거죠. 삼소회 성지순례 때도 참, 끝없이 이해하고 감싸 안는 일이 참 어렵더만요. 어렵사리 회향 잘하고 돌아오니 정진석 추기경님이 ‘진명 스님, 부부도 해외여행을 하면 죽으니 살리니 난리치면서 올 때는 한 놈은 먼저 들어온다는데 삼소회는 성공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스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스님 곁에 있다 보니까 안개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삼소회란 1988년 세계장애인올림픽을 도우면서 태어난 종교 벽을 허 여성 수도자 모임이다. ‘원아분신변진찰’ 부처님은 중생들 곁에 맞게 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부처님 경지를 해와 달에 비유하는 까닭도 해와 달은 늘 하늘에 떠서 두루 비추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 또한 그와 같이 이 시대 큰 스승으로 두루 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자기 분상에서 만큼만 본다. 저 아는 만큼만.

“저도 뭐 스님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흔이 넘어 여든이 되어도 스님처럼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화두입니다.

다. 하하.”

진명 스님은 딱 두 해만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베이징 만월사 주지를 맡았다. 그런데 벌써 세 해를 훌쩍 넘기고 어느덧 네 해도 저물어 간다. 언젠가 백두산 천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한국에서 온 어느 스님이 “진명 스님, 여기서 수지가 맞아? 스님은 한국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 마이크 한 방이면 되잖아”하고 말을 건넸는데. “중단에서도 마스터플랜이 없는 게 해외포교인데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지금 저러면 수지 타산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속 계산으로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중노릇이고. 출세간 계산법으로 보면 정말 수지타산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도량 하나 만들면 수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위로받고 마음을 바로 잡고 닦으며 수행을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창출이거든요. 기도행위를 저 사람들은 뭔가 구할 게 있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얻어주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는구나하면서 참 단순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삼세 업장을 녹여낸다면 세세생생 참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스님들은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정한 승가 계산법은 다르다. 큰 농사를 짓는 진짜 농사꾼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다.

글=법정 법정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사진=마음을 담은 사진쟁이 이종승



왕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1

왕생요집(往生要集) 저자 겐신(源信)

“대저 왕생극락의 교법과 수행은 탁세말대(獨世末代)의 덕목이다. 도속귀천 어느 누가 귀의하지 않을 자 있는가.”

민중의 대지에 일본 정토신앙의 마르지 않는 물줄기를 댄 겐신(942~1017)이 지은 <왕생요집>의 유명한 첫 구절이다. 당시 세상은 1052년에 말법시대가 시작된다고 보고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갖은 재난 위에 권력에 대한 인간의 쟁투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 가고 있었다. 천태종 본산 히에산의 요카와(横川)에 은둔하던 겐신은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빠른 꺾는 열불 수행에 몰두했다. 열불 2역 편, 읽은 대승경전만 5만 3500권, 다라니 100만 편.

겐신이 44세 때인 985년 세상에 나온 이 저술은 당시 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사람들은 필사를 하며 열불행의 텍스트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 천태산 국경사에 서는 남녀 500여 명이 힘을 보태 서각을 짓고

니, 어찌 풀잎에 이슬 같은 목숨에 의지하라. 생사의 부침에는 기한이 없으니 부디 연대(蓮臺)에서 만남을 기약하자.”

염리에토흔구정토(厭離世欣求淨土), 말하자면 번뇌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청정하고 청량한 정토를 원한다는 정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는 결사인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 아난과 위제희 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극악한 중생마저도 하품하생에 태어날 인연을 베푸는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지해 임종시의 10념을 강조했다.

중세시대 호넨(法然), 신란(親鸞), 잇펜(一遍) 등 기라성 같은 정토교 조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텍스트는 단테의 <신곡(神曲)>과도 비견된다. 당시 민중은 사후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겐신은 이러한 민중의 심리를 파악, 지옥을 묘사함으로써 극락정토에 대한 강렬한 발원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중생세계를 6도로 나누고, 이 가운데 지옥을 <구사론>의 8지 옥처럼 나누어 그림을 그리듯 상세히 묘사했다.

15세에 출가한 겐신은 젊은 날 이미 인명론을 비롯한 천태의 교학을 섭렵한 뛰어난 교학

단테 신곡과 비견되는 문학성 뽐내 열불결사, 후대 정토교에 큰 영향

경찬식을 행했다. 또한 겐신의 묘를 조성하여 이 책과 초상화를 안치하기까지 했다.

겐신은 저술만이 아니라 3년 뒤에는 열불결사를 위한 요카와 슈료곤인 25삼매식(首楞嚴院二十五昧式)을 지어 규약을 정했다. 승속을 막론하고 28~68세 25명이 참여하는 삼매회로 밤을 밝혔다. 그의 발원문에는 구구절절 불국토에 대한 왕생의 간절함이 드러난다.

“생각하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가 많으며 무상하다. 우리들은 부질없이 생사를 반복할 뿐 도심을 발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직도 이 율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량수경>에 열불을 외는 것으로 80억겁생사의 죄를 벗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내세의 낙으로 삼아 여기에 우리들이 약속을 맺어 선우(善友)가 되고 임종까지 서로 도와 열불을 외기로 했다. 25인을 결연 대중으로 하고 후시 이 가운데 병자가 나오면 결연자들은 간호하며 열불을 권하자. 사후에 극락왕생의 원을 이룬 자는 악도에 떨어진 자도 반드시 그 이유를 결연 대중에게 알리자. 결연자는 마음을 하나로 하고 정토왕생의 수행을 함께 하며 특히 매월 15일 저녁에는 열불삼매를 수행하고 임종의 10념을 기원하자. 생사에 장애가 있으

자의 반열에 올라서 있었다.

천태의 관상(觀想) 열불과 순수 내세정토의 신앙을 추구했던 그의 행적은, 화산과 지진, 태풍과 해일, 여기에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등으로 고통 받는 대다수 민중들이 정토세계에 깊이 의지하도록 큰 길을 열어준 공적으로 늘 기억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겐신의 초상, 오모츠시(大津市) 성내대영사(聖來迎寺) 소장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이제복 지음 (270면)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목욕,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패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